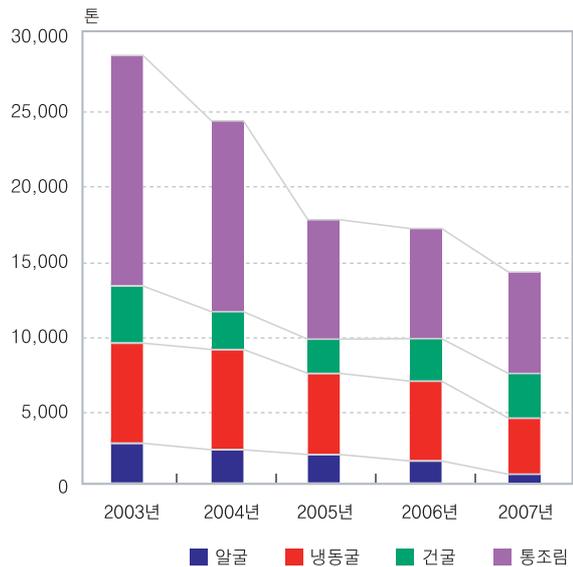


이번 FOCUS는 굴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를 분석하고, 주요 굴 수출업체 관계자를 면담 조사한 결과이다.

● 굴 수출량,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 굴 수출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의 경우 2003년의 절반 수준인 약 14,000톤에 그쳤다.
- 특히 수출량이 가장 많은 통조림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굴의 가격 상승과 위생문제로 인해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알굴과 냉동굴의 수출도 각국의 위생조건 강화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굴 수출은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화교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 한편 2008년 들어와서는 원화가치 하락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제품별 굴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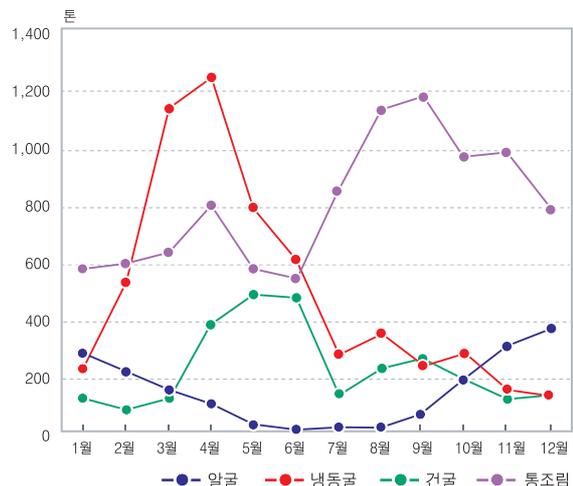


주: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

● 굴 제품별로 주요 수출시기 달라

- 제품별로 굴이 많이 수출되는 시기는 제품의 생산시기와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 알굴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생산시기인 11~1월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냉동굴은 비만도가 높은 3~4월이 주요 수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건굴은 4~6월, 통조림은 8~9월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통조림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주 소비시기에 맞춰 하반기 수출이 많은 편이며 장기보관이 용이하다는 제품 특성상 월별 수출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월별·제품별 굴 수출량 추이〉



주: 5년(2003~2007년)간 월별 평균치임

집필진

강종호(총괄), 옥영수(생산·가격전망), 박광서(생산·산지가격), 김효진(도소매가격·수출입·해외·FOCUS)



굴

수산물관측

2008년 6월호

통권 제116호 2008년 6월 5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이 정 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등 수산물 전반의 수급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산 굴 총생산량, 34,300여 톤으로 추정

2009년산 시설의향은 2008년산에 비해 4% 적은 수준

-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2008년산 굴은 34,300여 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경남의 생산량은 전국의 90%인 31,000여 톤이었다. 한편 5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의 4% 수준인 약 100만 연으로 대부분 월하될 것으로 보인다.
- 2008년산 굴의 양성상태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좋지 못했다. 통영과 고성에서는 폐사가 많았고 비만도도 부진한 편이었으며, 여수의 경우 2007년산과 마찬가지로 대량폐사가 발생하였다.
- 2008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2007년산에 비해 13% 낮은 3,679원을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2월까지의 2007년산에 비해 낮은 가격이었으나, 3월부터는 다소 높게 형성되었다. 한편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689톤이었다.
-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2009년산 시설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원가 상승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08년산에 비해 4% 적은 2,581만 연이 시설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굴 수산물관측」은 2개월간 휴간되며, 2009년산 굴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9월에 다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2008년산 「굴 수산물관측」의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양식어가, 유통·수출업체 등의 관측요원들과 수협 및 수산사무소 등의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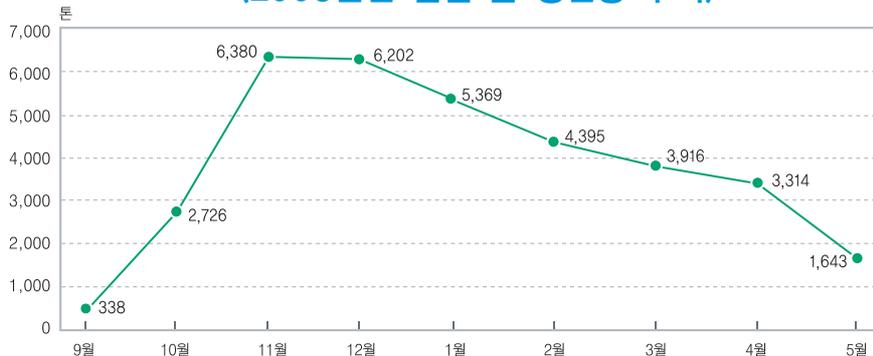
2008년산 굴 생산량은 34,300여 톤, 양성상태는 예년에 비해 좋지 못해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생산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08년산 굴 생산량, 34,300여 톤으로 추정**

-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8년산 굴 생산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2008년산 굴은 34,283톤으로 추정되었다. 표본어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물량은 2007년산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는 김장 수요가 많은 11월과 12월에 6,000톤 이상 생산되었으며, 1월부터는 전월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특히 예년에 비해 12월까지의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하연의 비중이 예년보다 높았고 김장철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어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12월까지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2008년산 월별 굴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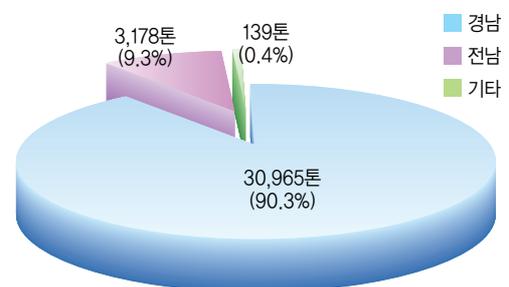


주 : 알굴 기준으로 5월은 잠정치임

● **경남의 굴 생산량, 전국 생산량의 90% 차지**

- 경남의 2008년산 굴 생산량은 30,96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0.3%를 차지하였다. 이 비중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다른 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전남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9.3%인 3,178톤으로 예년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여수와 고흥의 양성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한편 기타지역은 작년 12월에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여파로 전국 생산량의 0.4%에 불과한 139톤이 생산되었다.

〈2008년산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주 : 알굴 기준으로, 기타지역은 충청, 강원, 경기, 인천임

● 5월 말 잔여시설량, 초기시설량의 4% 수준인 약 100만 연으로 추정

- 5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4.2%인 102만 연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초기시설의 4.3%인 70만 연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물량은 작년보다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들 잔여물량은 여름철(6~8월)에 일부 생산이 이루어지겠으나 대부분 율하되어 9월부터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굴 잔여시설량(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구 분	수하연 평균 길이(m)	초기시설량	5월 채취량	잔여시설량	잔여시설률(%)
전 국	4.0	2,435	116	102	4.2
경 남	5.1	1,624	107	70	4.3
전 남	2.6	767	9	31	4.0
기 타	1.4	44	0	1	2.3

주 : 1) 5월 채취량 및 잔여시설량은 잠정치이며, 기타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임
 2) 충남은 초기시설량 259만 연, 잔여시설량 217만 연이나 기름오염 피해가 심해 제외하였음

● 2008년산 굴 양성상태, 예년보다 좋지 못해

- 2008년산 굴의 양성상태는 거제와 남해, 완도, 진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좋지 못했다.
- 경남은 통영과 고성에서 11월에 다량의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년에 비해 비만도가 부진하였다. 또한 고성의 경우 2월 이후 해조류, 해면류 등 해적생물의 부착이 많았다.
- 전남은 여수에서 2007년산에 이어 2008년산도 10~11월에 대량폐사가 발생하였고, 고흥의 경우 폐사는 적었으나 비만도가 저조하였다.
- 충남은 12월 이전에는 양성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기름유출사고로 대부분의 굴이 기름에 오염되어 어기 내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한편 12월 중순 이후 통영부터 고흥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에서 일부 굴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008년산 굴 양성상태〉

지 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	×	×	△	소량 폐사 발생, 비만도 부진
	지도·원문만	△	×	×	△	다량 폐사 발생, 비만도 부진
고성	고성·자란만	○	×	×	△	다량 폐사 발생, 비만도 부진, 해적생물 다수 부착
거제	거제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진해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남해	강진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여수	가막·장수·여수만	○	○	×	△	대량 폐사 발생, 비만도 매우 양호
고흥	-	△	×	○	△	비만도 부진, 해적생물 다수 부착
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12월 7일 이후 양식시설 대부분 기름오염 피해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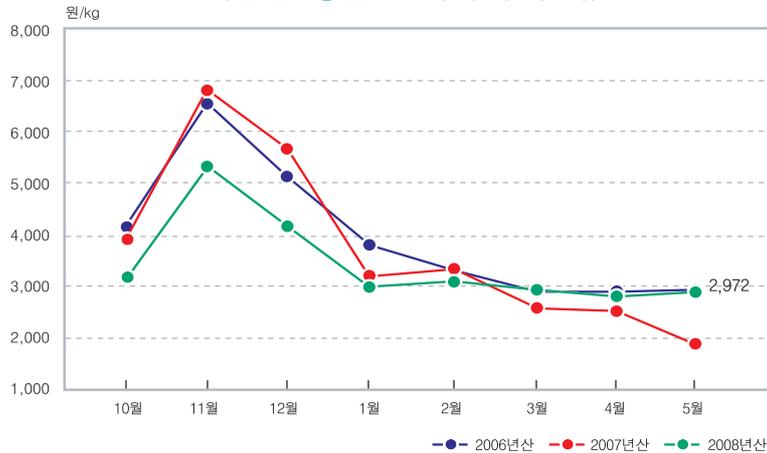
가격동향

5월 산지 및 도소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2008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2007년산에 비해 13% 하락

2008년산 평균 산지가격, 2007년산 대비 13% 하락

- 굴수하식수협에 위판된 2008년산 생굴의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3,679원으로 2007년산에 비해 12.7% 하락하였다.
- 월별로는 2월까지 2007년산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채소값이 급등하여 김장용 굴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생산은 전년산에 비해 증가한 데다가, 일부 굴이 검게 변하는 현상으로 인해 품질이 다소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부터는 2007년에 비해 수출이 늘고 생산이 줄면서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한편 1월부터 3,000원 내외의 안정된 가격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월별 생굴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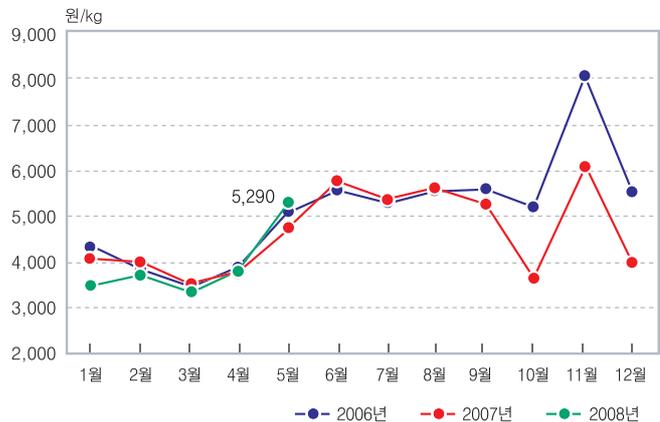


자료 : 굴수하식수협

5월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 5월 굴 도매가격은 시장반입량 감소로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가격은 kg당 5,29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39.2% 상승하였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kg당 5,957원에 거래되었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월별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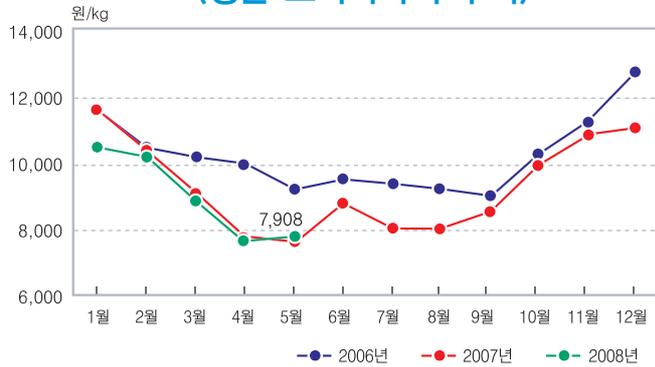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5월	4월	5월		
노량진수산시장	4,710	3,800	5,290	39.2	12.3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6,257	5,838	5,957	2.0	-4.8

주 :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2008년 5월은 잠정치)

● 5월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5월 생굴 소비자가격은 전월보다 3.4% 상승한 kg당 7,908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9%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부산의 소비자가격은 예년과 달리 전월 대비 6.1% 상승한 kg당 7,500원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7.1%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서울과 광주는 지난달과 동일한 kg당 8,000원에 거래되었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5월	4월	5월		
전 국	7,612	7,647	7,908	3.4	3.9
서 울	8,000	8,000	8,000	0.0	0.0
부 산	7,000	7,071	7,500	6.1	7.1
광 주	7,333	8,000	8,000	0.0	9.1
대 전	7,500	7,984	7,750	-2.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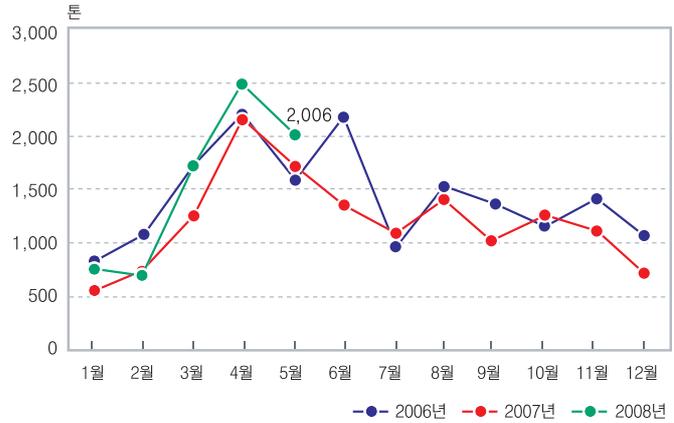
주 : 2008년 5월은 잠정치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동향

5월 굴 수출량, 작년 동월보다 20% 증가

- 5월 굴 수출량은 2,006톤으로 전월 대비 19.7%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9.9% 많은 수준을 보였다.
- 제품별로 살펴보면, 알굴과 냉동굴의 수출량은 생산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전월에 비해 45%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건굴은 지난달보다 33.8% 증가한 779톤이었고, 통조림은 519톤이었다.
- 한편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7,689톤이었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8년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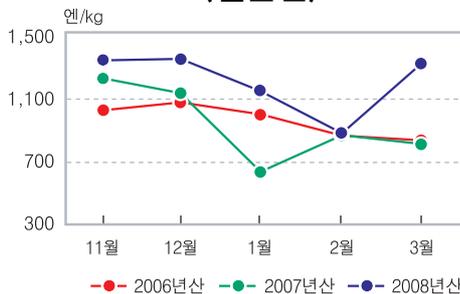
해외동향

2008년산 일본 굴 도매가격, 2007년산 대비 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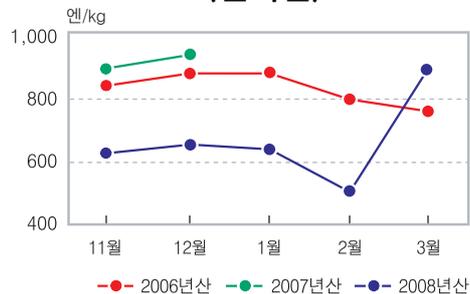
-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2008년산 일본 굴 평균 도매가격은 노로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던 2007년산에 비해 24.8% 상승한 kg당 1,180엔이었다.
- 그러나 2008년산 한국 굴 도매가격은 2007년산보다 32.0% 낮은 kg당 610엔에 거래되었다.

〈연도별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굴 도매가격 추이〉

〈일본산〉



〈한국산〉



주 : 1)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연간 굴 거래실적은 총 5개월뿐임

2) 한국산은 2007년 1, 2, 3월의 거래실적이 없었음

자료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city.osaka.jp/sikyo/sikyo.html>)

생산전망

2009년산 굴 시설의향, 2008년산보다 4% 감소

● 2009년산 굴 시설의향, 2008년산 대비 4% 감소 전망

-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2009년산 시설량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총 시설량은 2,581만 연(지역마다 수하연의 길이는 다름)으로 2008년산에 비해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굴 생산지인 경남의 감소 폭은 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 시설을 줄이고자 하는 의향은 경남과 전남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기타지역은 충남에서 기름오염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09년산 굴 시설 의향조사 결과〉

(단위 : 만 연)

구 분	수하연 평균 길이(m)	2008년산	2009년산	전년산 대비(%)
전 국	4.0	2,694	2,581	-4.2
경 남	5.1	1,624	1,584	-2.5
전 남	2.6	767	721	-6.0
기 타	1.4	303	276	-8.9

주 :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자료 : 굴 표본어가 설문조사 결과(2008.5. 22~5. 26)

● 6월 굴 수출량, 5월보다 감소할 듯

- 6월 굴 수출은 생굴 및 냉동굴 생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보다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작년 동월 수준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7, 8월 수출량은 통조림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6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6월 1일~30일)

■ 6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과학원)

구 분	동해 중남부	남 해	서해 중남부
수온 분포	16~21℃	18~23℃	16~23℃
평년 대비	1~2℃ 내외 고온상	평년과 비슷	1~2℃ 내외 고온상

■ 6월의 기상전망(기상청)

구 분	날 씨	기 온	강수량
상 순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5~22℃)보다 높겠음	평년(23~83mm)보다 적겠음
중 순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6~23℃)과 비슷하겠음	평년(26~76mm)과 비슷하겠음
하 순	흐린 날이 많겠음	평년(평균기온 17~23℃)과 비슷하겠음	평년(48~138mm)과 비슷하겠음